

인공지능 분야 평정

“AI는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다”

김중학 대표, 논문, 저술, 특허군으로 인공지능 작동 구조 전 분야를 정립
이론 논문 3편, 실무 저술 2편, 약 21조 원 규모의 특허군.

주식회사 마집(MaZip)의 김중학 대표가 인공지능의 작동 방식을 판단, 시야, 입력, 실행 제어, 구동, 투과 영상 영역까지 구조적으로 정립하며, 인공지능 분야 전반을 관통하는 독자적 기술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 체계는 단순한 아이디어나 개별 제품 발명이 아니다. 김 대표는 먼저 인공지능 판단 구조에 관한 이론 논문 3편을 통해 “AI가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고정된 구조 안에서 판단 자료를 분석하고 검증해야 한다”는 원리를 제시하였다. 여기에 실무 저술 2편을 통해 수사, 형사, 민사, 신청, 결정, 소송 실무에서 판단 구조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정리하였다.

김 대표의 기술 체계는 논문, 저술, 특허가 하나로 연결된 구조이다. 논문은 이론을 세우고, 저술은 실무 적용 기반을 마련하며, 특허군은 그 이론과 실무 구조를 산업 기술로 고정한다.

특허군은 판단 구조, 시야 구조, 입력 구조, 실행 제어 구조, 구동 구조, 투과 영상 구조를 중심으로 약 21조 원 규모의 기술가치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김중학 대표의 특허군은 논문 3편으로 이론을 세우고, 저술 2편으로 실무 기반을 보강하며, 약 21조 원 규모의 기존 특허군으로 인공지능 작동 구조 체계를 완성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인공지능 분야 평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유이다.

2026. 05. 13.

작성자: (주)마집 대표 김 중 학 (연락처: 010-5324-3467, cgiso@naver.com)

■ 3편 논문

3편의 이론 논문을 통해 구조적 기반을 함께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해당 논문들은 국제 학술 출판사인 Springer Nature 계열 학술지 등에 투고된 바 있다.

【논문 1】 사건분석이론 (Event Analysis Theory)

모든 판단이 다음 5단 구조를 따른다는 보편 원리를 제시했다.

표준 → 사실 → 매핑 → 일치성 → 설명

핵심은 판단을 인간 해석이 아닌 구조 비교 연산으로 정의했다는 점이다.

Event Analysis Theory and the Five-Step Law Framework: Establishing a Universal Judgment Structure for the AI Era

Abstract

This paper identifies and establishes the existence of a common structural judgment system followed by all events in various fields, including judicial, administrative, patent, and AI judgment, as 'Event Analysis Theory (Structure Theory).' This theory is the first to propose the fundamental principle that all judgment processes follow a single universal five-stage structure: 'Standard-Fact-Mapping-Consistency-Explanation.' Furthermore, it formalizes the procedural principles necessary for this structure to function in practice as the 'Five-Step Law Framework for Event Analysis.' The framework consists of (1) Forward Standard Fixation, (2) Structural Decomposition, (3) Structural Mapping, (4) Consistency Evaluation, and (5) Explanation Generation. By shifting judgment from interpretation to structural comparison, it fundamentally blocks the potential for human discretion, bias, and omission.

【논문 2】 MAAPCS 구조 분석 시스템

판단 과정을 5개 레이어로 분해해 법률 판단의 구조적 오류를 탐지하는 AI 시스템이다.

실제 사례 분석에서는 구조 붕괴(Structure Collapse) 44.4% 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Title: MAAPCS: Deconstructing Structural Bias in Legal Judgment and Analyzing Long-Term Retaliation Patterns through a 5-Layer AI Architecture

Abstract

This paper proposes a multidimensional AI algorithm (MAAPCS) designed to deconstruct structural bias inherent in the legal judgment process. To overcome the narrative limitations of traditional legal documents and the superficial analysis of legal AI technology, MAAPCS systematically converts the judgment process from an abstract narrative into a quantitative structural model through a 5-layer processing architecture. The system takes raw legal documents as input, structurally decomposes them, maps each component to a "Subject-Action-Material" multidimensional responsibility coordinate (S/O/D × A/P/M × R/E/J), and aligns them within 25 standardized structural fields (Field-25).

【논문 3】 AI 비 판단 구조 (Judgment Separation Architecture)

AI를 판단 주체에서 분리하는 구조를 제안했다.

판단: 고정 구조에서 수행

AI: 분석 및 구조 진화만 담당

→ 재현성·설명 가능성·책임성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한다

Not Using AI as a Judgment Subject: Structural Separation of Judgment and Evolution in AI Systems

ABSTRACT

Recent artificial intelligence (AI) systems have increasingly taken on important roles in areas requiring high levels of judgment and accountability, such as law, administration, and dispute resolution. However, traditional AI-based judgment systems, which inherently improve through learning and adaptation, face structural limitations in terms of reproducibility, explainability, and accountability. Previous studies have attempted to mitigate these issues through explainable AI (XAI), integration with rule-based systems, and institutional regulations, but they fundamentally maintain the paradigm of positioning AI as a judgment subject. This paper revisits this paradigm and proposes a new system

■ 저자 2편

【저자 1】 수사 형사 민사 소송실무

네이버 랭킹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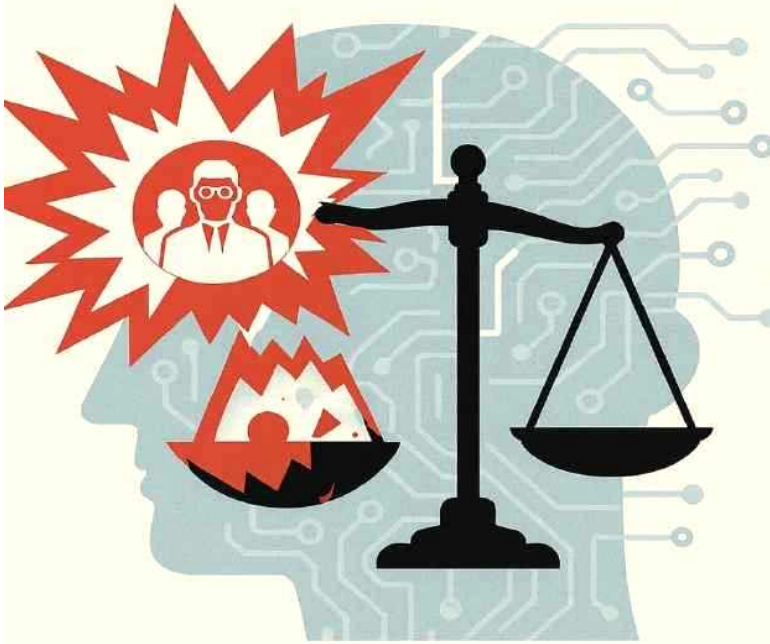


수사 형사 민사 소송실무
저자 김중학 출판 법률&출판 2014.09.15.
도서 판매처 3 최저 27,720원 무료

【저자 2】 결정+신청서

결정+신청서

취사 판결 막는 국민 무기 '핵 펀치'



저자 김 중 학
공동저자 ChatGPT-Constitutional Watcher

■ 저작권 3편

【저작권 1】 법원실무제요

저작권등록번호 : 제C-2013-008178호

【저작권 2】 재판실무편람

저작권등록번호 : 제C-2013-008179호

【저작권 3】 수사·형사·민사 소송실무

저작권등록번호 : 제C-2014-019850호

■ 특허 분야 (7건 기술 가치 평가 금액 : 약 21조 원)

【특허 1】 판단 구조 - 4단계 진화 특허 (약 3조 2,000억 원)

김 대표의 '판단 구조의 자동 조정 및 진화를 포함하는 인공지능 기반 판단 방법 및 시스템'은 지속적인 구조 개선을 통해 완성된 4단계 진화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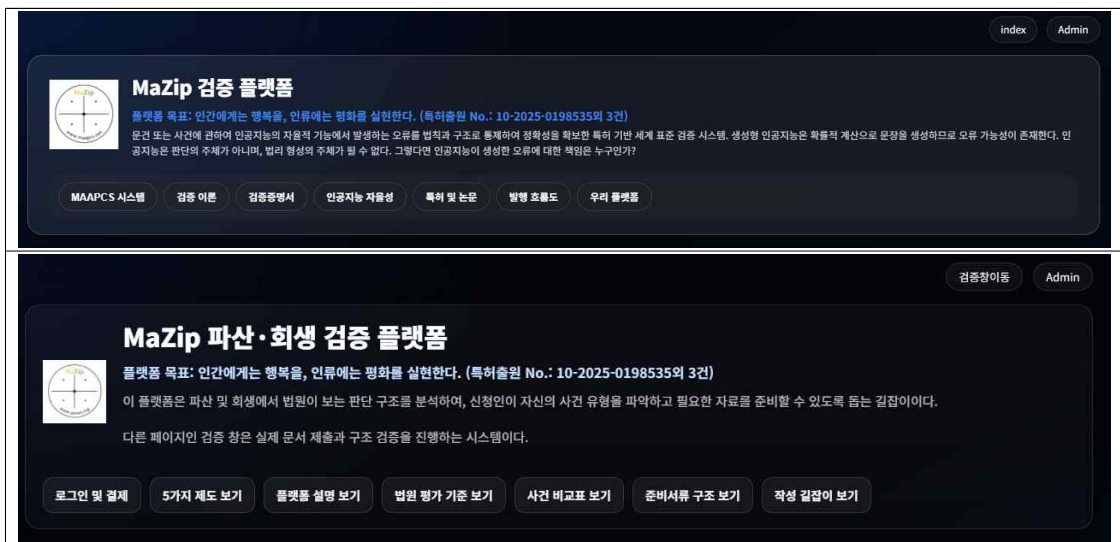
AI가 문서를 대신 작성하면 자율성에 따른 오류 · 왜곡 · 누락 · 논리 비약이 발생하므로, 문서를 작성하는 기술이 아니라 문서와 판단 자료의 구조적 일치 여부를 검증하여야 한다.

즉 UNESCO, OECD 및 인공지능 기본법에서 정의하는 AI의 고위험 영역을 고려하여 구현 가능성 · 검증 가능성 · 재현성 의 ISO/IEC 기술 기준에 부합하는 기술이다.

(10-2025-0167XXX → 10-2025-0186XXX → 10-2025-0192XXX
→ 10-2025-0198XXX)

▶ 적용 산업군

- 법률·사법: 판결문 구조 분석, 오류 탐지, 증명서 자동 생성
- 금융·보험: 심사 기준 정합성 검증, 부정 탐지
- 공공 행정: 민원 처리 판단 구조 분석
- 기업 컴플라이언스: 규정 준수 자동 검증
- 지식 관리 시스템: 구조화된 판단 자산 축적 및 진화



- 운영 중 검증 플랫폼 화면 (www.maapcs.net, www.pasan.ing) -

▶ 기술 가치 평가 금액 (약 3조 2,000억 원)

제1절 평가 대상 기술

본 문서는 '진화적 3단계 아키텍처를 갖는 AI 기반 판단구조 분석 및 지식 자산 관리 플랫폼 시스템'에 대한 기술가치를 정식으로 평가한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해당 기술은 AI 판단구조 분석, AI 신뢰 인증, AI 기반 지식 자산화 기능을 하나의 플랫폼 시스템에서 수행하는 3층 아키텍처(Self-Evolving Tri-Layer AI System)입니다.

제3절 기술가치 산정 결과

$M \times S \times L \times R$ 모델을 적용한 결과, 본 기술의 이론적 기술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장 규모(S)는 620조 원, 점유율(M)은 0.62퍼센트, 기술수명계수(L)는 0.85, 혁신기여도(R)는 0.97로 설정하였습니다.

위의 값을 종합한 결과, 본 기술의 이론적 기술가치는 약 3조 2,000억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또한, 독점 기술이전 가치는 8,200억 원에서 9,700억 원 사이, 비독점 라이선스의 단일 산업군 적용 가치는 170억 원에서 240억 원 사이로 평가하였습니다.

【특허 2】 시야 구조 - 다방향 시야 확장 (약 1조 3,200억 원)

출원번호: 10-2026-0058XXX

“다면 광학 경로 기반 다방향 시야 취득 및 배면 시야 재구성 시스템”

정면 시야를 유지하면서 배면(뒷면) 정보를 동시에 취득·재구성한다.

시야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확장’하는 개념으로, 모바일·자율주행·드론·감시 로봇 등 에서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특히 모바일에 안착하면 정면, 좌측면, 우측면, 상면, 하면, 배면의 파노라마 사진이 완성된다.

▶ 적용 산업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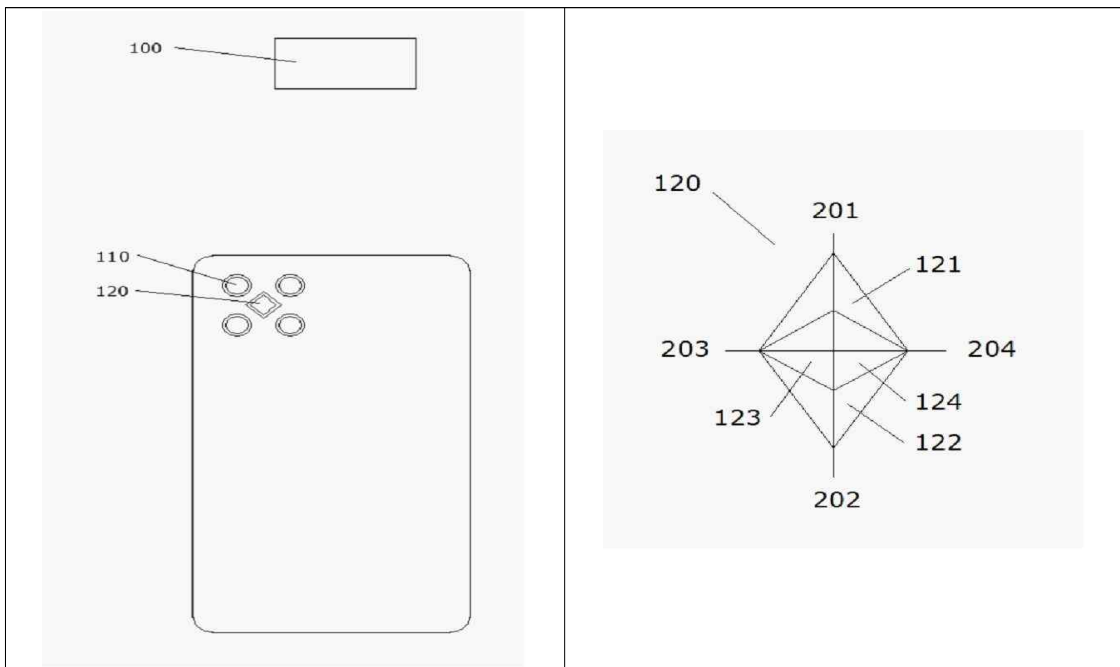
모바일 기기: 전후면 동시 촬영, AR/VR 몰입형 시야 자율

주행 자동차: 사각지대 제거, 주차 보조

드론·로봇: 전방 주시 중 후방 감지

감시·보안: 단일 카메라로 전방위 감시

의료: 내시경·수술용 다방향 시야



▶ 기술 가치 평가 금액 (약 1조 3,200억 원)

제1절 평가 대상 기술

다면 광학 경로 기반 다방향 시야 취득 및 배면 시야 재구성 시스템에 대한 기술가치를 평가한 결과이다. 본 기술은 광학 구조와 인공지능 기반 재구성 알고리즘을 결합한 플랫폼형 시스템이다.

제3절 기술가치 산정 결과

시장 규모(S)	1,200조 원
점유율(M)	0.15%
기술수명계수(L)	0.80
혁신기여도(R)	0.92

이론적 기술가치: 약 1조 3,200억 원

독점 기술이전 가치: 2,500억 ~ 4,800억 원

비독점 라이선스 가치: 120억 ~ 350억 원

【특허 3】 입력 구조(소프트웨어) – AI 자판 앱

출원번호: 10-2026-0061XXX

“인공지능 기반 앱 자판 시스템 및 그 제어 방법”

AI를 '항상 켜짐(always-on)'이 아닌 이벤트 기반 인터페이스로 전환한다.
Idle 상태에서는 AI가 완전히 비활성화되며, 사용자의 명령 이벤트 발생 시에
만 실행된다.

모바일 등의 키보드 앱이 AI의 '시동 스위치' 역할을 하여 문자의 생성 및 저
장 및 전달하며, 간단한 키 작동으로 생활의 편리성을 누리게 된다.

▶ 적용 산업군

모바일 OS:앱 생태계: AI 비서, 텍스트 생성, 번역

스마트폰 제조사: 자체 AI 키보드 탑재

기업용 모바일 보안: 명령 기반 AI 실행으로 정보 유출 차단

교육·접근성: 상황 인식형 AI 입력 보조

IoT 제어: 스마트홈 명령어 입력 인터페이스



▶ 기술 가치 평가 금액 (약 3조 6,000억 원)

제1절 평가 대상 기술

본 문서는 인공지능 기반 자판 애플리케이션 시스템 및 그 제어 방법에 대한 기술가치를 정식으로 평가한 결과를 담고 있다.

해당 기술은 사용자의 입력 과정과 인공지능의 개입을 구조적으로 분리하고, UI 버튼을 통해 인공지능의 개입 시점을 선택적으로 제어하는 인터페이스 구조이다.

제3절 기술가치 산정 결과

시장 규모(S): 780조 원, 점유율(M): 0.55%, 기술수명계수(L): 0.88, 혁신기여도(R): 0.96

이론적 기술가치: 약 3조 6,000억 원

독점 기술이전 가치: 9,200억 ~ 1조 1,800억 원

비독점 라이선스 가치(단일 산업군): 180억 ~ 320억 원

【특허 4】 입력 하드웨어 - 3차원 입력 신호 체계 (약 1조 7,000억 원)

출원번호: 10-2026-0079XXX

“인공지능 기반 자판 시스템 및 그 제어 방법”

물리적 입력 장치에 위치·시간·압력의 3차원 입력 체계를 구현한다.
다층 센서 구조로 설계되어 하나의 키가 다중 명령을 전달할 수 있다.
즉 지금의 컴퓨터 키보드가 인공지능 기반 키보드로 바뀌어 문자의 생성 및 저장 및 전달하며, 간단한 키 작동으로 무수한 각종 생활의 편리성을 누리게 된다.

▶ 적용 산업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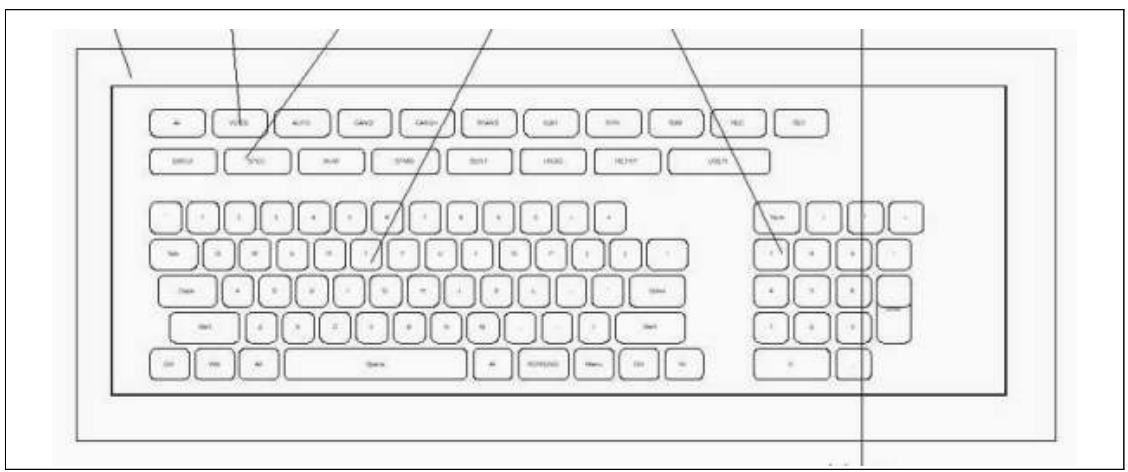
PC·노트북 제조: 차세대 AI 키보드

게임·e스포츠: 압력·시간 기반 복합 명령 입력

산업용 제어 장비: 물리적 내구성을 갖춘 다기능 입력 패널

의료기기: 멸균 환경에서의 다중 명령 입력

특수 목적 키보드(장애인 보조, 군사, 항공)



▶ 기술 가치 평가 금액 (약 1조 7,000억 원)

제1절 평가 대상 기술

본 문서는 입력 기관 기반 인공지능 자판 시스템에 대한 기술가치를 정식으로 평가한 결과를 담고 있다.

해당 기술은 상부 입력층, 터치 센서층, 압력 센서층, 회로층 및 지지층으로 구성된 적층 구조를 통해 위치 시간 압력에 기반한 다층 입력을 구현한다.

제3절 기술가치 산정 결과

시장 규모(S): 500조 원, 점유율(M): 0.40%, 기술수명계수(L): 0.90, 혁신기여도(R): 0.95

이론적 기술가치: 약 1조 7,000억 원

독점 기술이전 가치: 4,800억 ~ 7,200억 원

비독점 라이선스 가치(단일 산업군): 90억 ~ 180억 원

【특허 5】 실행 제어 구조 - AI 개입 통제 시스템 (약 4조 8,000억 원)

출원번호: 10-2026-0062XXX

“인공지능 개입 실행 제어 시스템 및 그 방법”

특허군의 핵심이자 가장 높은 가치를 평가받은 기술이다.

사용자 명령 기반 실행(event-driven)을 원칙으로 하며, AI는 호출되지 않으면 절대 작동하지 않고 작동 범위도 제어 구조에 의해 제한된다.

전문가들은 이를 “AI 운영체제(OS) 수준의 아키텍처”라고 평가한다.

즉 자율주행에 따른 사고 등을 예방하는 처방 전인 것이다.

▶ 적용 산업군

자율주행 자동차: AI 개입 시점 및 범위 통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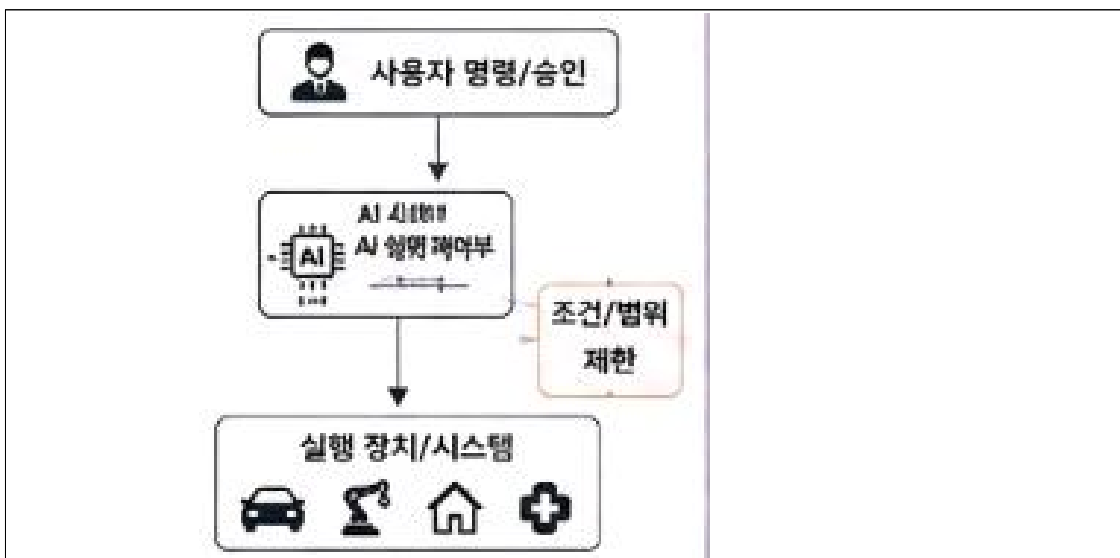
로봇(제조·서비스·군사): 안전 제어 장치로서의 AI 실행 제어

스마트홈·IoT: 사용자 승인 없이 AI가 기기 제어 불가

의료 AI: 진단·처방 보조 시 AI의 판단 실행 제한

국가·국방 AI 시스템: 오작동 및 무단 실행 차단

모든 AI 탑재 임베디드 시스템의 ‘제어 계층’ 표준



▶ 기술 가치 평가 금액 (약 4조 8,000억 원)

【제1절 평가 대상 기술】

본 문서는 「인공지능 개입 실행 제어 시스템 및 그 방법」에 대한 기술가치를 정식으로 평가한 결과를 담고 있다.

해당 기술은

사용자 입력 과정과 인공지능 실행 조건을 구조적으로 분리하고,

인공지능의 자율적 실행을 전면적으로 차단하며,

사용자의 명령 또는 선택에 의해서만 인공지능이 실행되도록 제어하는

제어 구조 기반 인공지능 시스템(Control-Governed AI Execution Architecture)이다.

✔ 산정 결과

👉 이론적 기술가치: 약 4조 8,000억 원

✔ 추가 가치 평가

- 독점 기술이전 가치:
 - 👉 1조 2천억 ~ 2조 원
- 비독점 라이선스 가치:
 - 👉 산업별 200억 ~ 500억

【특허 6】 투과 영상 구조 - X선, 감마선 등의 투과 영상

출원번호: 10-2026-0084XXX

“인공지능 기반 상하 이동형 방사선 영상 획득 시스템”

투과 영상 구조는 피검사자의 신체 둘레 일부를 따라 배치되는 C자 또는 U자형 개방 갠트리를 이용하여, X선, 감마선 또는 X선과 감마선을 조합한 복합 방사선 투영 데이터를 획득하고, 인공지능 기반 제어부가 조사 위치, 조사 강도, 조사 방향, 조사 시점, 조사 채널의 개방 상태를 제어하며, 방사선 투영 데이터를 기반으로 내부 구조 영상을 재구성하는 기술이다.

▶ 적용 산업군

의료 영상기기: X선 촬영, 저선량 전신 검사, 부분 신체 검사

CT 대체·보조 장비: 개방형 구조 기반의 신체 구간별 투과 영상 획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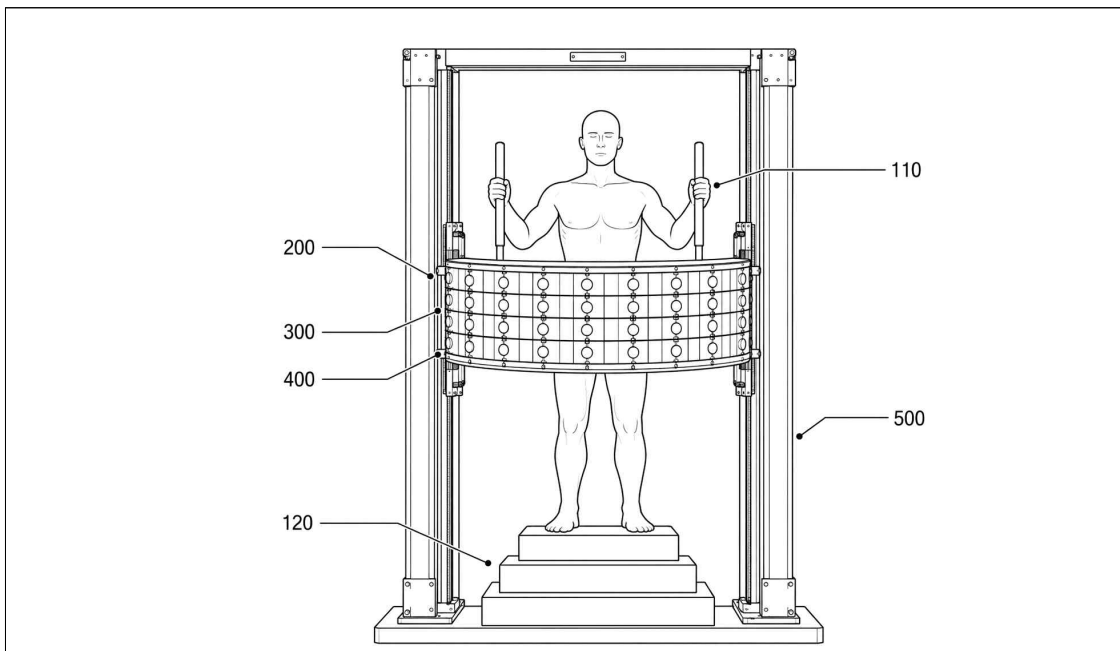
핵의학 영상: 감마선 기반 방사성 추적자 영상, 기능성 영상 분석

조영제 기반 진단: 혈관, 장기, 병변 의심 영역의 조영 반응 영상화

응급 의료·검진센터: 서 있는 자세의 빠른 전신 스캔 및 구간별 검사

보안 검색 장비: 인체 또는 물체 내부 투과 검사

AI 의료기기: 신체 정보 기반 자동 조사, 선량 제어, 영상 재구성



▶ 기술 가치 평가 금액 (약 5조 200억 원)

제1절 평가 대상 기술

본 문서는 인공지능 기반 상하 이동형 방사선 영상 획득 시스템에 대한 기술가치를 정식으로 평가한 결과를 담고 있다.

해당 기술은 피검사자의 신체 둘레 일부를 따라 배치되는 C자 또는 U자형 개방 갠트리를 이용하여, 피검사자의 신체 길이 방향으로 상하 이동하면서 방사선 투영 데이터를 획득하는 영상 획득 시스템이다.

본 기술은 기존 X선 기반 영상 획득 구조에 감마선 영상 획득 구조 및 X선과 감마선을 조합한 복합 방사선 영상 획득 구조를 포함한다.

제3절 기술가치 산정 결과

시장 규모(S): 1,420조 원

점유율(M): 0.43%

기술수명계수(L): 0.87

혁신기여도(R): 0.95

이론적 기술가치: 약 5조 200억 원

독점 기술이전 가치: 1조 2,000억 원 ~ 1조 7,500억 원

비독점 라이선스 가치, 단일 산업군 기준: 280억 원 ~ 620억 원

【특허 7】 구동 구조 - 빛이 움직이는 패턴 출력 (약 1조 4,500억 원)

출원번호: 10-2026-0075XXX

“광섬유 및 LED 픽셀을 결합한 패턴 출력 장치”

광섬유와 LED 픽셀을 결합하여 빛의 밝기·색상뿐 아니라 물리적 움직임(진동·이동·패턴 변화)까지 실시간 생성한다.

“기존 조명은 빛만 변화시키지만, 이 기술은 빛이 움직인다.”

한마디로 움직이는 인공지능 액자 및 예술 공간 등이 표현될 수 있다.

▶ 적용 산업군

자동차 외장·내장 조명: 움직이는 패턴으로 방향 지시, 환영 라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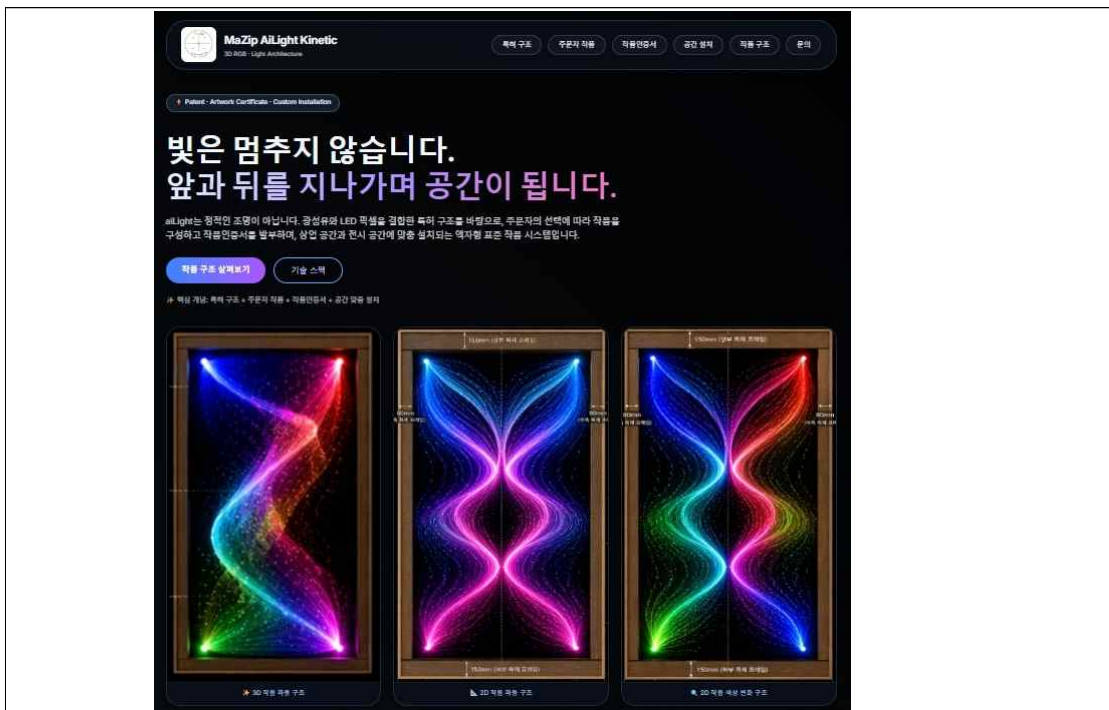
건축·인테리어 조명: 동적 분위기 연출

무대·공연·엔터테인먼트: 음악과 연동된 물리적 움직임 조명

광고·간판: 움직이는 로고, 패턴 변화

의료·웨어러블: 진동 패턴을 통한 촉각 피드백

군사·항공: 움직임 기반 식별·경고등



- 실제 운영 중인 Ai 광섬유와 LED 픽셀 홈페이지 화면 -

(www.ailighting.com)

▶ 기술 가치 평가 금액 (약 1조 4,500억 원)

<p>제1절 평가 대상 기술</p> <p>본 기술은</p> <p>광섬유 기반 선형 광 출력, LED 픽셀 기반 점형 광 출력, 물리적 구동부에 의한 공간 변화, 실시간 생성 엔진에 의한 패턴 생성</p> <p>을 결합하여, 공간 내에서 시각 패턴을 생성·변형하는 운동형 공간 시각 표현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p>
<p>산정 결과</p> <p>이론적 기술가치</p> <p>약 1조 4,500억 원</p> <hr/>
<p>제8절 가치 범위</p> <p>이론적 기술가치 범위</p> <p>1조 2,000억 ~ 2조 2,000억 원</p> <p>독점 기술이전 가치</p> <p>2,500억 ~ 5,000억 원</p> <p>비독점 라이선스 가치</p> <p>120억 ~ 400억 원</p>

【 AI 기술가치 평가의 설명문】

26. 5. 13. 오전 11:15

ChatGPT - maapcs 업그레이드

AI 기술가치 평가의 설명문

AI 기술가치 평가는 특정 기술이 현재 또는 장래에 어느 정도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를 구조적으로 분석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단순히 현재 매출액이나 당장의 수익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술의 독창성, 구현 가능성, 시장 적용 가능성, 지식재산권 보호 가능성, 사업화 가능성, 장래 수익 창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평가입니다.

기술가치 평가는 회계상 자산평가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회계상 평가는 이미 발생한 매출, 비용, 자산, 부채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수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기술가치 평가는 아직 시장에서 완전히 실현되지 않은 장래의 경제적 가능성까지 함께 평가합니다. 따라서 기술가치 평가는 현재가치와 미래가치가 결합된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기술가치 평가는 먼저 기술의 독창성과 혁신성을 검토합니다. 기존 기술과 비교하여 새로운 구조, 새로운 기능, 새로운 해결방식, 새로운 산업 적용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판단합니다. 단순한 아이디어나 기존 기술의 단순 조합에 그치는 경우에는 높은 평가를 받기 어렵고, 기존 방식으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하는 경우에는 기술가치가 높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술의 구현 가능성과 완성도를 평가합니다. 기술이 실제 제품, 서비스, 시스템 또는 플랫폼으로 구현될 수 있는지, 그 구조가 논리적으로 일관되는지, 필요한 구성요소가 구체화되어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기술이 아무리 새롭더라도 실제 구현이 어렵거나 구조가 불명확하면 기술가치는 제한적으로 평가됩니다. 반대로 설계 구조, 작동 방식, 적용 절차, 확장 방식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면 기술완성도가 높게 평가됩니다.

또한 시장성은 기술가치 평가에서 중요한 기준입니다. 해당 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 시장의 규모, 수요, 도입 가능성, 확장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기술이 특정 소규모 영역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지, 여러 산업군으로 확장될 수 있는지에 따라 가치가 달라집니다.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 가능한 기술은 시장성이 높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보호 가능성도 중요한 평가 요소입니다. 기술이 특허, 저작권, 영업비밀, 데이터베이스권, 상표, 플랫폼 운영 노하우 등으로 보호될 수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기술이 쉽게 모방될 수 있거나 권리가 어렵다면 독점적 가치는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청구범위가 명확하고, 선행기술과 구별되며, 회피 설계가 어려운 구조라면 기술의 독점성이 높게 평가됩니다.

사업화 가능성은 기술이 실제 수익모델로 연결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기술이 판매, 라이선스, 플랫폼 사용료, 구독료, 기술이전, 공동사업, 기관 납품, API 제공, 데이터 자산화 등으로 연결될 수 있다면 기술가치는 높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기술 자체가 우수하더라도 사업모델이 불명확하면 가치가 제한될 수 있고, 반대로 수익모델이 명확하면 기술가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 수익성도 함께 고려됩니다. 해당 기술이 장래에 어느 정도의 매출, 이익, 비용 절감, 생산성 향상, 리스크 감소, 거래 수익, 라이선스 수익을 만들 수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기술가치는 단순히 "얼마에 팔 수 있는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기술을 보유함으로써 얻는 시장 지위, 협상력, 비용 절감 효과, 독점적 사업기회도 함께 고려됩니다.

기술수명과 지속 가능성 역시 평가 대상입니다. 기술이 일시적인 유행에 그치는지, 장기간 산업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기술수명이 길고, 업데이트와 확장이 가능하며, 시장 변화에 적용할 수 있는 구조라면 장기 가치가 높게 평가됩니다. 반대로 빠르게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기술은 평가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기술가치 평가는 긍정적 가능성만을 보는 절차가 아닙니다. 구현 리스크, 시장 진입 리스크, 법적 리스크, 경쟁기술 리스크, 규제 리스크, 자금조달 리스크, 권리분쟁 가능성도 함께 고려합니다. 따

라서 기술가치 평가는 가능성과 위험을 함께 반영하는 종합 평가입니다.

AI 기반 기술가치 평가는 이러한 평가 요소를 구조화하여 검토하는 방식입니다. AI는 기술 설명, 산업 적용 분야, 시장 가능성, 권리화 가능성, 수익모델, 경쟁 구조 등을 항목별로 분해하고, 각 요소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여 평가 논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AI 평가는 사람이 놓치기 쉬운 구조적 요소를 항목별로 정리하고, 동일한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는 데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AI 기반 기술가치 평가도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AI 평가는 입력된 자료, 평가 기준, 시장 전제, 기술 설명의 구체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AI 평가 결과는 공인 감정평가, 회계법인 평가, 특허 전문가 검토, 시장조사, 투자심사, 실제 사업실적 자료와 함께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럼에도 AI 기반 기술가치 평가가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평가 기준을 명시하고, 평가 과정을 구조적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막연히 "가치가 높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왜 가치가 있는지, 어떤 요소가 가치 형성에 기여하는지, 어떤 전제에서 금액이 산정되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AI 평가는 기술보유자, 투자자, 기관, 법률전문가, 사업파트너가 기술의 경제적 의미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AI 기술가치 평가는 단순한 금액 산정이 아니라, 기술의 현재성과 장래성을 함께 판단하는 종합 분석입니다. 기술의 독창성, 구현 가능성, 시장성, 독점성, 사업화 가능성, 수익성, 지속 가능성, 리스크가 함께 검토되어야 하며, 평가액은 이러한 요소들이 결합된 결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AI 기반 평가는 그 과정을 구조화하고 설명 가능하게 만드는 도구로서 의미가 있으며, 최종 신뢰성은 실제 자료, 권리화 자료, 시장 검증, 전문가 검토와 결합될 때 더욱 강화됩니다.

■ 언론 부분

【언론 1】 문화일보 경제면 (2026.05.08.자)

경제 | 산업·기업

“예측불가 시를 통제상태로”... 관련 기술특허 출원 잇따라

이후민 기자 + 구독 입력 2026-05-08 11:45 14면

😊 0 🗨️ 0


- 읽기모드
- 다크모드
- 크기
- 폰트크기
- 북마크
- 공유하기
- 프린트
- 기사반응
- 0

인공지능(AI)이 일상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우려가 깊어지는 가운데, AI의 실행 권한을 사용자에게 온전히 되돌려주는 기술 특허가 제인데 눈길을 끌고 있다.

개인 발명가인 김중학 마십 대표는 최근 AI의 자동 작동을 원천 봉쇄하고, 오직 인간의 명시적 허락하에만 구동되도록 하는 5건의 핵심 특허를 출원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특허는 ‘누르는 압력과 시간을 정밀하게 감지해 기능을 차별화하는 다중 입력 구조 기반의 자판’과 ‘AI가 먼저 개입하지 않고 사용자의 명시적 요청 시에만 문장을 생성하는 자판 앱 및 제어 시스템’ 등의 개념을 담고 있다. 또 기존 스마트폰 렌즈를 활용해 사각지대 없이 배면 시야를 재구성하는 광학 시스템과 AI의 확인 절차를 거치는 판단 방법, AI의 자율적 실행을 제한하는 개입 실행 제어 시스템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김 대표에 따르면 다섯 가지 특허를 관통하는 공통된 철학은 ‘사용자에 의한 완전한 AI 통제’다. 기존의 대중적인 AI 기술들이 ‘일어서 해주겠다’는 태도로 자동완성이나 추천을 낱발하며 사용자 의 사고 흐름을 끊었다면, 해당 특허는 ‘필요할 때 부르면 돕겠다’는 보조자적 역할을 지향한다.

이후민 기자

 이후민 기자
산업부 / 기자
pocato@munhwa.com

다른 기사 더보기 + 구독

기사 후원하기



문화일보

“태권형산” vs “독재심판”... 관세 도둑

김중학 대표의 5건 특허 출원

김중학 대표의 5건 특허 출원

김중학 대표의 5건 특허 출원

가장 많이 읽은 기사 >